

제1독서 + 하다소

역할 설명

구약성경 또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회중에게 봉독하고, 이어서 화답송을 선창하는 역할입니다.

준비사항

- 미사 최소 15분 전 도착해서 독서 본문과 화답송을 미리 한 번 읽어볼 것
- 낭독 중 막히는 단어나 지명은 미리 검색해서 발음 확인
- 화답송 후렴구를 미리 숙지해둘 것 (회중이 따라 할 수 있도록 선창해야 함)
- 가능하다면 미사 전례서나 성경 본문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 권장 (출력물만 의존 X)
- 단정한 복장 착용
- 물 한 모금 마시고 올라가기 (목 상태 체크)

수행 방법 — 제1독서

이동 및 경례

- 자리에서 일어나 독서대로 이동할 때 제대를 향해 먼저 경례
- 독서대에 도착하면 잠깐 멈추고 회중을 바라본 후 시작

낭독

-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고 천천히, 문장 끝에서 살짝 내려가는 톤으로
- 마이크와 입 사이 거리는 주먹 하나 정도 (약 10~15cm)
- 쉼표에서 1박, 마침표에서 2박 쉬는 느낌으로 읽기
- 마지막 문장 읽고 잠깐 멈춘 후: '주님의 말씀입니다'
- 신자들이 '하느님 감사합니다'로 응답할 때까지 독서대에서 머물며 기다리기
- 응답이 끝난 후 화답송으로 이어가기 (바로 내려오지 않기)

시작 멘트: "제1독서. 이사야서 X장 X절~X절"

마무리: "주님의 말씀입니다"

→ 신자 응답: "하느님 감사합니다" (응답이 끝날 때까지 대기)

수행 방법 — 화답송

- 1독서 직후 내려오지 않고 독서대에서 이어서 진행
- 시작 전 잠깐 멈추고 회중이 준비될 수 있도록 여유 주기
- 후렴구를 먼저 선창: '후렴: OOO' 하고 한 번 읽어준 후 회중과 함께 노래 또는 낭독
- 시편 구절은 혼자 읽고, 후렴구는 회중과 함께 반복
- 화답송이 노래일 경우: 반주자와 미리 템포 맞춰두기
- 화답송이 낭독일 경우: 시편 구절을 또렷하고 천천히, 기도하는 톤으로
- 마지막 후렴구까지 마치면 제대를 향해 경례 후 조용히 자리로 돌아오기

자주 하는 실수

- 1독서 끝나고 바로 내려오는 것 → 화답송까지 세트, 응답 끝날 때까지 대기
- 후렴구 선창 없이 바로 시편 구절부터 읽는 것 → 회중이 언제 따라해야 할지 모름
- 화답송 템포를 반주자와 맞추지 않는 것 → 미리 반주자에게 확인
- 너무 빠르게 읽는 것 → 회중이 못 따라옴
- 마이크에 너무 가까이 대는 것 → 잡음 발생
- 내려올 때 제대 경례를 잊는 것 → 항상 제대를 향해 인사

- 화답송 후렴구는 미사 전날 꼭 한 번 읽어두세요
- 긴장되면 크게 숨 한 번 쉬고 시작하세요
- 미사 전례서를 직접 보면 출력물보다 읽기가 훨씬 편해요